

## ‘친일파 재산환수특별법’ 등 촉구 **촛불대법회**

13일 조계사에서... 봉선사·민족문제연구소 주최

반민족행위자 이해창 후손의 땅 찾기를 좌절시킨 봉선사와 내원암이 친일파 재산찾기근절을 위한 범국민행동에 나선다. (본지 540호 1면 참조)

봉선사(주지 철암)와 내원암(주지 재문)은 조계종중앙신도회, 민족문제연구소 등과 함께 9월 13일 오후 6시 조계사에서 ‘친일파 재산찾기 저지를 위한 촛불대법회’를 개최한다. 조계종과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촛불대법회를 통해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이고, 국회는 친일파 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9월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내원암 측은 이해창의 후손 21인의 소송 취하를 거부하고, 9월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재

판 계속’ 의지를 재판부에 전했다. 소 취하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봉선사 해문 스님은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찾기 소송을 근본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내원암 측이 신성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이 위헌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피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원암 주지 재문 스님도 “어른 스님들의 뜻은 물론 전 불자들의 염원을 받들어 이번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는 현재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며 원고 측 변호사도 사임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변론기일은 9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8월 30일 합천 해인사를 방문 극락전에 모셔진 통일신라 목조 비로자나불을 진경했다. 사진제공=해인사

## “비로자나불 복장에 화합기원문”

노무현 대통령 해인사 방문, 종정 법전 스님 예방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기 위한 동판제작 사업 역시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8월 30일 관양속 여사와 함께 합천 해인사를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해인사 주지 현승 스님의 영접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2시간 동안 해인사에 머무르면서 극락전에 모셔진 두 분의 9세기 통일신라 목조 비로

자나불을 진경하고,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예방했다.

9세기 통일신라 목조 비로자나불을 진경한 노무현 대통령은 9세기 목조 불상이 아직까지 보존된 것에 대해 “집착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부처님으로, 예술적인 가치 또한 높다”며 감탄했다.

이어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진경한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비로전을 지어 두 분의 비로자나불을 함께 봉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대

화합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담은 기원문을 작성하여 비로자나불의 복장에 넣기로 약속했다.

해인사 법보전의 비로자나불은 최근 개금과정에서 통일신라시대(9세기경) 조성된 국내 최고(最古) 불상으로 확인된 비로자나불은 현재 개금 불사를 앞두고 옷칠을 한 상태이다. 9월 10일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일반에 공개해 불상의 자비로운 미소를 진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 마감 12월 17일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요.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 (110-030) 서울시 중로구 청운동 54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 2005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 2006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부타뉴스
- 문의전화 : (02)2004-8239 ■ 이메일 접수 : bypark@buddhapia.com
- 시상 부문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지 사장상)
  - 특별상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만) 열쇠를 드립니다.

## 부타뉴스에서 부타피아 정보를 만나다

‘현대불교 미디어센터(HBMC)’는 8월 31일부터 부타뉴스(www.buddhanews.com)에 부타피아(www.buddhapia.com)의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부타뉴스에 오시면 이제 실시간 교계 동향은 물론 기사별로 동일한 색인의 동영상(뉴스, 법문, 강의, 다큐), 사진(7만여 장), PDF파일 등 관련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색인에는 ▲논문(6천여 종)/고서/잡지(21종 1만여 기사) ▲불교 용어사전(1만9천 단어) ▲기관단체(2만6천여 곳) 정보 ▲스크린 제이머 ▲관련 경전/법문 ▲도서 정보(yosiamun.com 제공) ▲불교 지식검색 등 부가정보도 제공합니다.

## 동화사 계율수행 대법회

‘경전속의 지계정신’

법주 : 철우 스님(9월 10일 오후 3시)



## 어디 좋은 원고 없나요?

도서출판 민족사 '제1회 출판원고 공모전' 열어

“참신한 원고가 없다.” “필자 발굴이 시급하다.” “불교 관련 원고가 일반출판사에 선점당하고 있다.”

불교출판의 침체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지적되는 문제들이다. 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양질의 원고를 발굴하기 위해 불교계 출판사가 발 벗고 나섰다. 바로 도서출판 민족사대표 윤창화가 ‘제1회 출판원고 공모전’을 개최한 것이다.

이번 공모전은 참신한 원고와 대중성을 갖춘 필자를 발굴해 불교출판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민족사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필자와 독자간의 교두보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모전에는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200자 원고지 600매 이상의 분량을 10월 30일까지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원고 내용은 불교인문, 교리해설, 수행 등의 불교적인 내용을 비롯해 역사, 문화, 수필, 아동 청소년물 등 분야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출판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면 된다. 단, 시와 소설, 학술서는 제외다.

원고는 완성된 상태이거나 80% 이상 집필된 것이면 응모 가능하며, 미완성작일 경우 3개월 이내에 완성된 원고를 제출하면 된다.

당선자는 11월 넷째 주 불교계 신문을 통해 발표하며 상금은 대상작 1편에 800만원, 최우수작 1편 500만원, 우수작 3편에 각각 300만원이 주어진다. (02)732-2404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08-1 금강빌딩 2층 도서출판 민족사, minjoksa@chol.com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불교계 친일인사 63명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 발표

민족문제연구소 등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위원장 윤경로, 이하 편찬위)와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현영)는 국치일을 맞아 8월 29일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될 대상자 309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종교계 인사는 157명으로, 불교계가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48명), 천도교(25명), 유교(14명), 가톨릭(7명) 순이었다. 불교계 인사가 가장 많은 까닭은 선정기준과 관련된다. 편찬위는 친일단체의

핵심간부, 친일논설 발표자, 부일협력 강연회 반복 참여자 중심으로 친일인사가 선정했는데, 당시 교세가 컸던 불교계에 단체가 많아 핵심 간부도 많았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불교계 인사로는 일제시대 말 조계종단을 창립하고 조계사를 창건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지암 스님(이종욱)과 태고종 종정을 지낸 대륜 스님, 통도사 주지 구하 스님, 동국대 초대 총장을 지낸 권상로 박사 등이 있다.

지암 스님은 조선신궁 참배, 국방현금, 조선사찰 전체에 국위선양무

운장구원체 거행 지시, 승려들의 지원병 지원 격려 등의 이력이 문제가 됐다. 구하 스님은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조선총독 테라우치를 위한 축하식을 열었고, 일본시찰단 단장이 됐으며 황군위원회에 참석하는 등의 친일행적을 보였다. 권상로 박사는 많은 친일 시국강연회에 참가했고, 전시 친일단체 최고 지휘부인 국민총력조선연맹에 참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친일인사 선정과 관련 조계종·태고종 등 주요 종단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두 스님의 친일이 항일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지암 스님과 구하 스님 문도 측은 “편찬위 측에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편찬기사2편 박익순 기자 ifo@buddhapia.com**



그림·조태호    지운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참가업체 모집**    국내 최초의 불교산업 전문 전시회에 참가업체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 한국 최대규모의 종교산업 전문전시회

# 2006 한국불교박람회

**2006. 3. 23(목) ~ 3. 26(일)**  
**서울무역전시장(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참가신청: **(02)736-0993**  
**www.bexpo.org**

**주최: BBS불교방송, (주)제이컨벤션    주관: 한국불교박람회 사무국**

---

**전시 분야**

사찰건축: 총합각설, 석자, 도어, 황도, 조공, 난방, 가파, 전기, 조명, 단청, 불화, 장화, 사찰장식, 조형각각, 지하수계, 간판안내, 계사인문 등

유지보수: 성보보수(목재, 석조, 기타), 보호재(벽화, 불상), 방범방화시스템, CCTV, 빔저, 금고, 명선문, 안면인, 김치유리 등

첨단포교: 음향시스템, 스피커, 조명,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제작관리, 컴퓨터그래픽, 위성방송, 홀로그램 등

**상례문화, 사찰행사 및 기타**

장례문화: 납골관련 특별전시관, 불교장례문화 소개 등

행사기획: 행사종합기획, 출연자(합창 및 공금제), 공연, 초연, 무대장치, 기념품, 여행사, 현수막 및 행사소품 등

불교용품: 불상(청동·금·목조), 범종, 법고, 목어, 목각, 죽비, 오령, 연등, 제기, 불교공예, 도서, 기원문, 사부, 향, 초상화·가례성, 영주, 부구, 액자, 승복, 의복 등

종단 및 교육: 각 종단 특별전시관, 종단학교 및 각종 관련 학교 교육전시 등

성당 지원시설: 종단 및 사찰 총무원장, 법무, 세무, 각종 인가, 협동주택 등

**기획 전시 및 전통차, 웰빙관**

전통차: 녹차, 보이차 등 각종 차 및 다구

친환경 먹거리: 사찰 특산물, 채식, 친환경 농산물, 생식 등

웰빙 관련: 경신, 요가, 신무도, 웰빙, 건강식품 등

**야외 전시 및 부대행사**

특별공연: "BBS 특별 공개방송", "불교와 국악의 한데" 등

야외 전시: 야외전시관 특별운영